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및 6월 동향

리더 메시지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6월 Newsletter』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및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AI 트렌드에 대한 이사회 감독」과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활용방안’을
수록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만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회계감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40건, 19.2억원 지급 ('19년~'25.5월말 기준)

→ '19년부터 포상금 지급, '23년에는 산정기준금액 2배 상향 등
제도개선 후,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빠르게 증가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액



✔ 회계부정 신고의 품질 향상 (상세 증거자료 제출, 증권선물위원회 직접 출석 등)

✔ 신고자는 내부자(약 65%), 거래처(15%), 주주(10%), 기타(5%) 순

✔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건 중 75%가 고의·중과실로 중징계 조치 부과

중징계 처분

약 75%



과징금 누적 부과액

약 249 억원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 자본시장은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며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은 시장 신뢰 저해 요소로 작용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 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②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③ 시장 효율성 제고의 3가지 방향에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함

① 주주 간 균형 재정립

- 1 유상증자 중점심사
- 2 M&A 제도 관련
- 3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 4 주주행동주의
- 5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

③ 시장 효율성 제고

- 1 공매도 전산화
- 2 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4 거래시스템 다양화(ATS)

②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 1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2 증권사 PEF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대응
- 3 심사·감리 성과 및 Process 개선



✓ 기업의 투명한 공시, 건전한 지배구조, 책임경영 등 적극적·선제적 노력 기대

최근 3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 집중 및 현장감리 확대

→ 214사 제재조치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 과징금 부과*, 22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액: '19년~'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 → '22년~'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

회계위반 예방을 위해 연 2회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 '22년 이후 공개 확대(15건→18건→27건), '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

→ 최근 14건의 지적사례 공개, IPO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회계실무에 참고 가능

주요 조치 사례

구분	내용
IPO 예정기업	IPO 목적으로 재무성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 등 중조치 부과
현장조사	회사의 허위매출 관련 미판매 재고를 현장에서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
한계기업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영업이익을 허위계상한 한계기업에 대해 거래소에서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	중대한 회계 위반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161억원) 부과
테마심사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하여 오류를 예방하고, 오류 항목은 신속 점검으로 회계정정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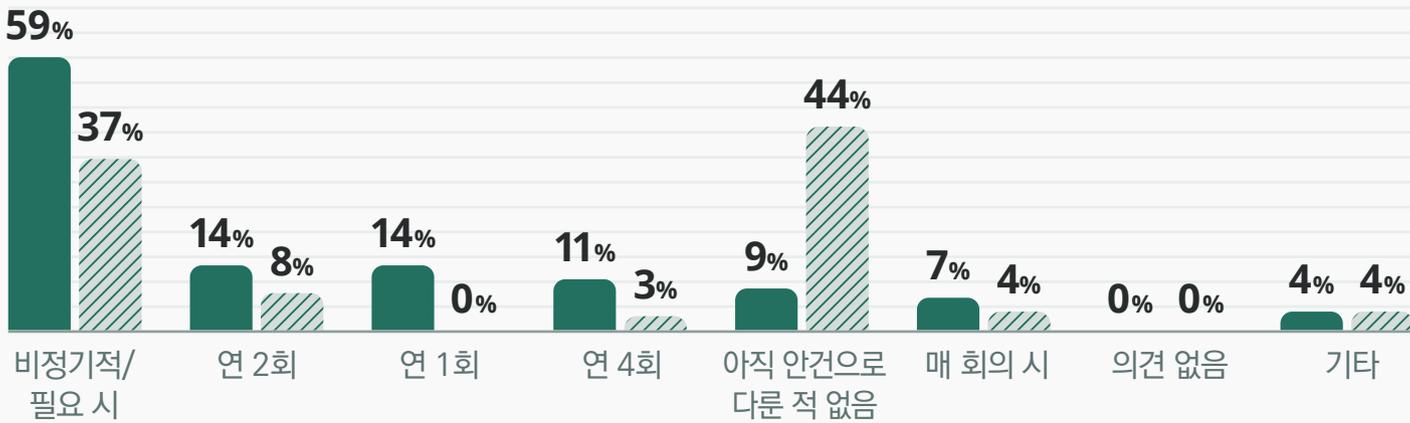
AI 트렌드에 대한 이사회 감독

AI 확산 속 거버넌스 체계 보완 필요

4곳 중 1곳, AI 감독 주체 '미설정'... 논의도 절반 이상은(59%) '필요 시' 수준에 그쳐

이사회·위원회 AI 관련 안건 논의 빈도

2025 2023



AI 활용 영역

AI 활용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증가율 14%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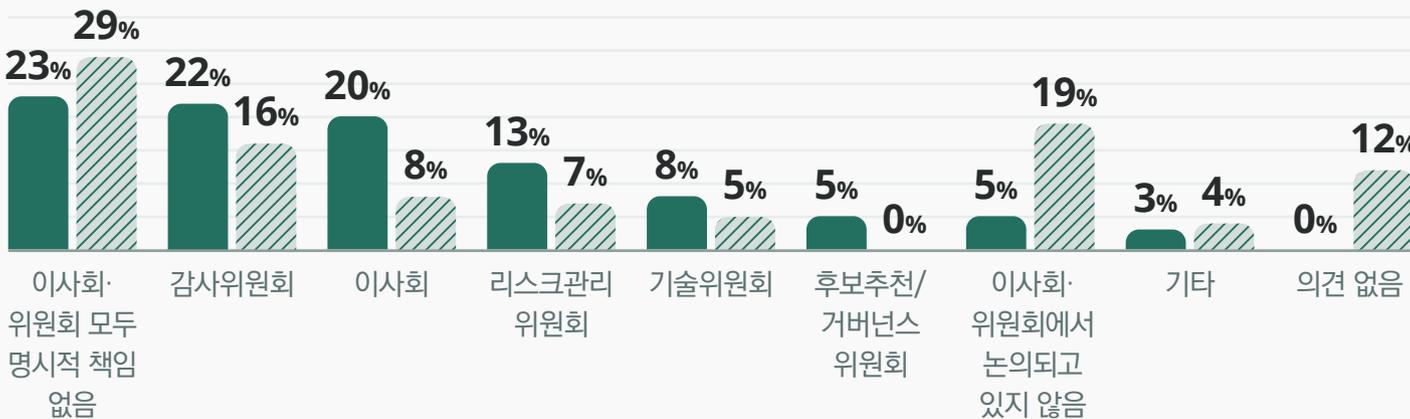
최다 활용 영역 **39%** 서비스 제공

최소 활용 영역 **18%**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영업·마케팅, 상품 개발, HR, 재무·회계, 리스크 관리

AI 주요 감독 권한

2025 2023



이사회 역량 진단표(Board Skills Matrix)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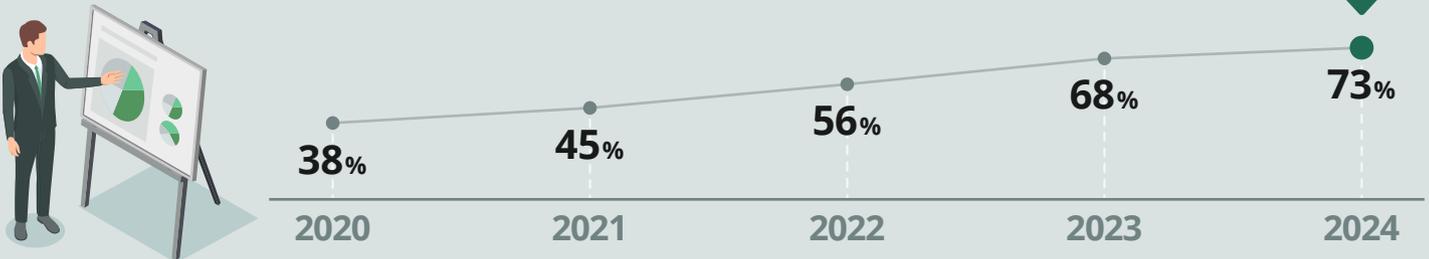
Q.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를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이사회 역량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까요?

BSM은 이사회 구성, 역량(경험·전문성·지식 등), 다양성(성별·나이 등) 정보를 표·그림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BSM은 이사회 구성, 승계계획, 이사 선임 등에 핵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성,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승계계획과의 연계 운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BSM 공시 트렌드 **

“4년 만에 BSM 공시 비율, 약 2배 증가”



글로벌 금융사들은 BSM을 이사회 구성의 핵심자료로 활용하며, 작성주체, 대상, 전문분야 기준, 검토 주기 등을 규정해 승계계획과 이사 선임의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BSM 공시 비율은 최근 4년간 약 2배 급증(38%→73%)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BSM 활용이 권장되는 주요 의사결정 영역

신규 이사 선임

기존 이사회 내 미흡역량 보완을 위한 선임기준 설정

이사회 승계계획 수립

전략 변화에 따른 이사회 구성 적정성 반영

위원회 구성·배정

이사의 전문역량을 고려한 위원회 배정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정량적 근거자료로 활용

* 금융감독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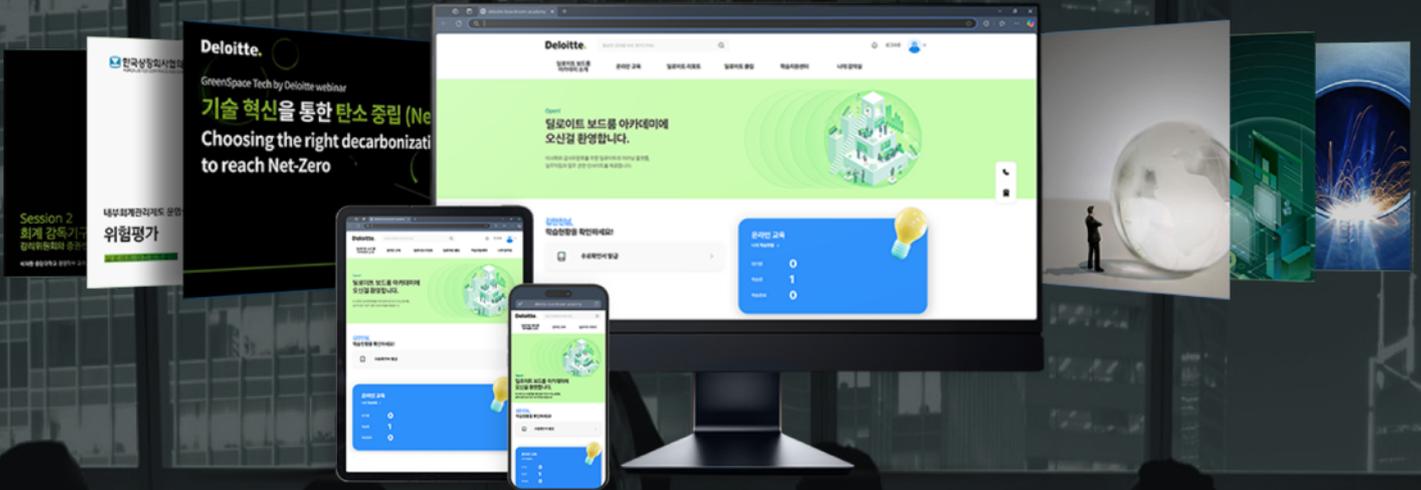
** Spencer Stuart, 「2024 U.S. Spencer Stuart Board Index」, 2024.09.

이사화·감사위원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오픈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딜로이트의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종합한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화·감사위원회를 위한 맞춤형 핵심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I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 파트너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Audit & Assurance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김한석 Partner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